

시·군통합이 지역내 및 지역간 균형성장에 미친 효과*

홍준현**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first, whether city-county consolidation has had the effects of balanced growth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consolidated region, second, how different is the degree of balanced intra-regional growth effects among consolidated cities, and finally which characteristics of consolidated cities are mainly related with the balanced intra-regional growth in Korea. To achieve the first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intra-regional population change between before and after consolidation, and analyzes the growth potentials of consolidated cities. To achieve the second purpose, this study classifies consolidated cities in terms of the balanced intra-regional growth effects using cluster analysis. And to achieve the third purpose, this study identifies the factors related with the balanced intra-regional growth effects utilizing discriminant analysis.

The findings from the analyses imply that city-county consolidation in Korea not only has the growth effects for the overall consolidated areas, but also has the effects of even develop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consolidated areas. Furthermore, city-county consolidation seems to decrease the regional disparities across the nation. However the result that the balanced intra-regional growth effects are not generated consistently in every consolidated city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in selecting areas for future consolidation.

[Key Words: 시군통합, 도농통합,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성장, 통합시]

I. 서론

1994년과 1995년에 걸쳐 단행된 시·군통합에 의한 都農統합은 제1·2차 국토종합개발의 기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41-B00600).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jhhong@cau.ac.kr).

초인 성장거점개발전략에 의한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즉, 시·군통합은 도시지역인 시와 농촌지역인 군을 공간적으로 접근시켜서 개발권역을 일치시킴으로써 양 지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기능을 상호 교환 내지 보완하여 권역내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지역 내의 부존자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역의 생산기반을 강화하며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통합된 시·군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우루과이 협상이 재정력이 취약한 농촌 군 지역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시·군통합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장태옥, 1994; 최양부·윤원근, 1988; Glendening and Atkins, 1980; Herbers, 1989; Horan and Taylor, 1977; DeGrove, 1973). 이러한 시·군통합의 기초는 1992년에 발표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본 목표 중의 하나인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과 그 추진전략인 지방도시 및 농어촌의 집중 육성과 수도권외의 집중 억제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시·군통합으로 탄생된 都農統合市가 과연 지역 내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사실 기존의 연구들은 서로 상이한 연구결과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Rusk(1993)와 Downs(1994) 등은 신규 개발을 위해서 인근 지역을 통합할 수 있었던 도시들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서 경제 성장의 수준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면서, 하나의 지역생활권이 분할되어 있는 곳보다 통합되어 있는 곳이 전체 지역생활권의 경제 성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는 Blair, Staley, and Zhang(1996), Persky, Sclar, and Wiewel(1991), Blair and Zhang(1994) 등에 의해 반박되었다. 즉, 시·군통합이 전체 지역생활권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키는데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중심도시의 경제성장이 항상 주변지역의 경제성장과 연계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시·군통합의 역사가 70년이 넘는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찬반논의와 검증작업이 계속되고 있음은 우리나라의 시·군통합 작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첫째, 시·군통합이 지역내 및 지역간 균형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시·군통합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는데 있으며, 둘째, 통합시간에 지역균형성장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셋째, 통합시의 어떠한 특성이 지역 내 균형성장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II. 시·군통합의 특징 및 지역성장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1. 시·군통합의 특징

시군통합은 도시지역인 시와 농촌지역인 군을 공간적으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서, 양 지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기능을 상호 교환 내지 보완하여 대도시화의 그늘에서 발전이 정체된 지방의 중소도시와 그 배후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지역개척적 접근 이론이다(장태욱, 1994: 9).

도시와 농촌의 통합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John Friedmann과 Mike Douglas가 주창한 기초수요(basic need)에 입각한 도농접근법(agropolitan approach)에서 연원한다. 도농접근법은 성장거점이론(growth pole theory)을 비롯한 효율적 성장위주의 지역불균형 성장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제기된 이론이다(임승달, 1995).

성장거점이론은 국가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동시에 모든 지역을 개발할 수 없으므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성장거점(도시)을 먼저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육성하면 집적의 경제(economies of agglomeration)가 발생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전 지역에 대해서 고르게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성복, 1995). 다시 말해서, 성장거점도시의 ‘성장’이라는 가시적인 효과는 주변 농촌지역에 성장에 대한 열의와 자신감을 확산시킬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된 성장력은 궁극적으로 그 개발효과를 주변지역(농촌)으로 확산(spread effect)시켜 장기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것이다. 성장거점전략은 또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 기능적 경쟁을 촉진시키고 성장의 주도권을 전국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수도권과 같은 수위도시로의 인구집중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중간규모의 성장거점도시들이 농촌으로부터 유출되는 인구를 흡수할 수 있고, 수위도시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Hansen, 197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0년대의 수도권 인구집중의 완화, 1970년대의 거점개발방식, 1980년대의 성장거점도시의 지정 등으로 성장거점전략을 부분적으로 원용해 왔다(박종화·윤대식·이종열, 1995; 박수영, 1994).

물론 성장거점개발에 의한 도농분리형 행정구역조정은 지난 '60년대~'70년대의 고도성장기에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중심의 공업화요구를 수용하고 팽창하는 도시지역의 효율적 관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긴 하나(권선택, 1994; 백성운, 1994; 최양부·윤원근, 1993), 지난 20년간의 결과는 성장거점개발의 확산효과가 기대수준에 못 미치거나 오히려 농어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개발효과가 더욱 집중되는 역류효과(backwash effect)가 일어나서 농촌이 도시에 종속되고 도시로부터 분리되는 등 지역격차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장태욱, 1994; 최양부·윤원근, 1988; 박종화·윤대식·이종열, 1995). 구체적으로 군의 중심지 역할을 하

는 도시지역(읍)이 시로 승격하여 군으로부터 분리되면 잔여군부(rump county)는 면적과 인구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수준이 저하되고 지방세원이 약화되며, 행정인력이 분산되는 등 잔여군부의 행·재정력이 크게 위축되게 된다. 심지어 인구 5만이 안되는 읍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해 주변의 면지역을 편입시킴으로써 잔여군부의 면적과 인구가 크게 위축되게 되었다. 1994년을 기준으로 군지역의 재정여건을 보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군이 72개로 전체 136개 군의 53%에 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지역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좁은 면적으로 인해 토지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고, 잔여 군 지역은 인력의 도시유출로 인해 공동화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성장거점이론의 자동적인 지역균형성장 가설에 대한 비판으로 Myrdal(1957)의 순환적 누적적 인과모형(circular and cumulative causation model)은 불균형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Myrdal에 따르면 공간경제상에 균형과 불균형의 두 가지 대조적인 힘이 작용하는데, 시장의 방임에 맡기면 지역간 균형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즉, 부유한 지역은 구매력이 높고 요소수익률이 높아서 더욱 더 집적이 강화되고 부유해지며, 가난한 지역은 구매력도 낮고 소득수준도 낮음으로써 산업 활동이 침체되고 새로운 산업의 유입은 고사하고 기존 산업시설의 기반까지 흔들리게 되어 더욱 더 가난하게 된다.¹⁾ 다시 말해서 성장거점도시가 배후지역의 자본과 유능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흡수할 것이기 때문에 성장거점전략은 확산효과보다는 역류효과를 발생시키고 오히려 그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성장거점개발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해 주는 기초수요(basic need)접근법이 유용하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기되었다(Misra and Prantilla, 1981). 그리고 이러한 기초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구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을 통합한 도농지역(agropolitan districts)단위의 개발전략을 사용하는 도농접근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임승달, 1995: 34-35).

우리나라의 경우 시·군통합이 단행되기 이전인 1992년에 있었던 고양군의 고양시로의 승격이 도농통합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백성운, 1994: 72-73; 이규환, 1994: 25).

1) Myrdal(1957: 34)은 이러한 경향이 경제발전이 낮은 수준의 국가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즉, 자유방임상태에서의 경제개발 및 미개발의 가장 중요한 두 법칙은 시장메커니즘이 지역간 불균형을 창출하는 경향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한 나라가 빈곤할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는 것이다.

2. 시군통합의 지역성장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도농통합시의 내부관리와 효율성에 대한 연구나 대주민관계 측면의 연구에 비해서 도농통합의 지역성장,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국내의 연구가 빈약한 편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주로 도시계획이론가들이 시군통합이 지역전체 수준에서 경제성장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제공해주고, 개발과정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향상시켜준다고 주장하고 있다(Rigos, 1995). 즉, 통합시 정부는 경제개발과 도시계획을 광역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통합이 안 되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규모의 개별 정부들은 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세원이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Becker, 1996). 게다가 Fleishmann and Green(1991)은 통합시는 경제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독립부서를 통해 소규모의 개별 정부들보다 우월한 조정능력과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Savitch and Vogel(1995) 역시 통합정부가 지역생활권 전체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중심도시가 성장하고 그 주변지역을 통합할 수 있을 때 지역생활권 전체가 가장 번영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긴밀한 연계성을 확인해주고 있다. Ledebur and Barnes(1993)의 연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간에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최소화되었을 때 전체 지역생활권이 가장 번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은 함께 성장하거나 함께 쇠퇴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시·군통합을 옹호하는 가장 획기적인 연구는 Rusk(1993)의 연구이다. 그는 비록 도농통합에 한정적으로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정부로 분열되어 있는 광역권(metropolitan area)을 하나의 정부로 통합할 경우 광역권 전체의 지역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1950년부터 1990년까지 320개 광역도시권역에 있는 522개의 중심도시들에 대한 센서스자료를 분석한 결과, Rusk는 신규개발을 위해서 유희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적 경계를 확장할 수 있었던 시는 그렇지 못한 시에 비해 경제적으로 높은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중심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역도시권역 전체에 해당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탄력적인 도시(elastic city)를 갖고 있는 광역도시권은 비탄력적(inelastic)인 지역에 비해 신규고용창출의 비율이 훨씬 높았고(pp.40, 70), 경제변화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었고(p.71), 인구성장률이 더 높았고, 광역권 전체지역의 경제성장을 가져왔고(pp.40-41), 중심도시와 배후지역 간에 소득격차도 덜했다(pp.75-78)고 기술하고 있다.

Downs(1994) 역시 지역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광역권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와 군을 통합하는 지역적 거버넌스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Rusk와 Downs의 견해는 실제로 Clinton대통령의 초대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장관인 Henry Cisneros에 의해 전적인 동의를 끌어내기도 하였다 (Cisneros, 1995).

이 밖에 Voith(1992), Savitch et al.(1993) 등도 도시와 교외지역이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관계에 있으며, 양자의 불균형은 결국 광역도시권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Feiock, Dubnick and Mitchell(1993)도 개발정책의 비용이 개별도시의 주민별로 부담되지만, 개발로 인한 편익이 개별도시를 넘어서는 광역지역에서 발생한다면, 광역지역 내의 개별도시들 간의 경쟁은 비효율적인 제로섬(zero-sum) 경쟁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많은 반대 연구들에 의해 논박되었다. Blair, Staley, and Zhang(1996)은 시·군통합이나 광역정부, 합병이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항상 효과적일 것이라는 실증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광역권 내에 있는 지방정부들의 기본적인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정부간 협조를 강화하는 대안들도 광역권 전체의 경제 향상에 똑같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Carr and Feiock(1999)도 통합전후의 산업성장에 대한 비교를 통해 통합이 경제성장을 향상시킨다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 밖에도 Persky, Sclar, and Wiewel(1991), Blair and Zhang(1994)은 도시와 교외지역의 연계발전의 필연성을 반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역발전 또는 지역경제성장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있으나 이를 시·군통합과 연계시켜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시·군통합과 관련된 연구를 보완하고 시·군통합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의 시각을 보다 확대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분석방법

1. 시군통합의 지역내 및 지역간 균형성장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역성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역인구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물론 인구의 성장이 지역성장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완벽한 지표는 아니지만 인구의 성장 또는 감소는 지역의 성장이나 쇠퇴를 유추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일 것이다.²⁾

2) 물론 지역간 균형성장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경제개발을 통한 지역간 소득격차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고 (김윤상, 1986), 보통 1인당 주민소득의 차이를 비롯한 경제지표로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한표환, 1994; 홍기용, 1994). 그러나 근래에는 지역격차의 개념을 소득, 지역복지, 생활의 질 또는 인간의 기본수요 등의 측면에서 광의적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황명찬, 1994). 지역격차의 개념을 소득격차라는 개념에서 확대하여 삶의 질의 격차로 해석한다면, 지역격차는 외형적·물질적 생활상태뿐

먼저 시·군통합이 통합된 지역의 성장효과를 가져왔는지, 도시와 농촌 간에 균형성장의 효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통합 전과 통합 후의 인구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시·군통합이 1994년 말과 1995년 초에 이루어졌고, 인구센서스가 5년마다 이루어지므로 통합전후의 인구비교는 1990년에서 1995년간의 인구변화와 1995년에서 2000년간의 인구변화를 비교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구변화의 비교는 통합지역 전체, 과거 시 지역, 과거 군 지역 중 시 인접지역, 과거 군 지역 중 외곽지역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졌다. 이 경우 인접지역과 외곽지역의 구분은 과거 시지역과 직접 경계를 맞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과거 시지역과 직접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읍·면지역은 인접농촌지역으로, 그렇지 않은 읍·면지역은 외곽농촌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통합시 뿐만 아니라 통합이 안 된 지역도 1990-95년 기간보다 1995-2000년 기간에 인구가 더 크게 증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군통합전후의 단순 비교는 시·군통합의 효과를 정확하게 나타내주지 못한다. 따라서, 통합시와 통합이 안 되었지만 통합시와 유사한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간에 양기간간의 인구성장률의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도 역시 (통합)지역 전체, (과거) 시 지역, (과거) 군 지역 중 시 인접지역, (과거) 군 지역 중 외곽지역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통합시의 인구성장은 또한 주변 배후 군 지역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시와 중심도시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군과도 비교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는 J. S. Mill이 제시하는 실험조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합전후의 비교를 통해 시간적 선후관계를 갖추고 있고, 시·군통합이라는 조작이 가해졌으며, 통합시라는 실험집단과 비통합지역이라는 비교집단을 구비하고 있다. 실험집단인 통합시는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시를 제외한 40개 통합시 전체³⁾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시·군통합이 아니라 군 전체가 시로 전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⁴⁾는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통합시에서 제외시켰다. 비교집단인 비통합시는 현행 통합시와 마찬가지로 과거 시·군통합의 대상이 되었으나 주민의견조사에서의 반대로 인해 통합에 실패한 지역 전체⁵⁾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군통합의 지역간 균형성장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도별 데이터에 대한 변이계수

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 행복과 같은 의식적 측면과 건강상태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인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강인재, 1996: 2).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단위의 수준이 시·군의 행정적 단위와 군의 하위 계층인 읍·면단위까지 내려가고 있고, 이러한 분석단위에 대한 사회경제 지표관련 자료가 생산되고 있지 않아, 인구의 변화를 가장 적절한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3) 남양주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충주시, 제천시, 아산시, 공주시, 서산시, 보령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순천시, 나주시,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김천시, 경산시, 상주시, 영천시, 문경시, 구미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밀양시, 광양시, 평택시, 천안시, 익산시, 사천시, 김해시, 여주시

4) 김포시, 과천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논산시, 양산시, 안성시

5)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군; 속초시, 양양군; 청주시, 청원군; 전주시, 완주군; 목포시, 무안군; 제주시, 북제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coefficient of variation)를 측정하였다. 변이계수는 변량의 측정단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척도 무영향성(scale invariance)⁶⁾을 가지고, 특정분포와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갖지 않아 상이한 분포에서도 동일한 측정치가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윤상, 1986: 125). 변이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뉘므로써 산출될 수 있다(김호정, 1993: 96-97). 분포가 완전 평등일 때 변이계수는 0이 된다. 변이계수는 장기간에 걸친 지역간 소득격차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계열적 방법을 사용하여 변화패턴을 집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이상엽, 1995: 716). Williamson (1965)의 각국의 지역간 격차에 대한 연구 역시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지역격차를 측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군통합의 지역균형성장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1990-95년과 1995-2000년의 통합시의 인구성장률을 각 도별로 평균을 산출한 후 양 기간에 대한 변이계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균형성장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도별 전체 인구성장률에 대한 변이계수의 값에 대한 비교 측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2. 지역균형성장효과에 따른 통합시의 유형화

위에서 살펴 본 시군통합의 지역균형성장 효과는 통합시에 따라 그 정도가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균형성장효과가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통합시를 유형화하여 어떤 통합시가 상대적으로 지역균형성장효과가 더 크고 어떤 곳이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약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시군통합의 지역균형성장효과에 따라 통합시를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시 지역의 통합 전후 인구성장률의 차이와 (과거) 군 지역 중 시 인접지역의 통합 전후 인구성장률의 차이의 격차 정도, (과거) 시 지역의 통합 전후 인구성장률의 차이와 (과거) 군 지역 중 외곽지역의 통합 전후 인구성장률의 차이의 격차 정도, 그리고 통합시 전체의 통합 전후 인구성장률의 차이라는 3가지 기준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통합시의 유형화를 위해서는 군집분석이 사용되었다. 군집분석은 분류의 외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분류의 대상이 되는 개체의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해서, 그 특성치를 통계적인 조작에 의해서 각 개체를 군집으로 분류하는 기법이다. 도시유형을 구분하는 것도 도시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변량을 선정하여 각 도시 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추정하여 비교적 유사한 도시를 동일 유형으로 분류하는 측면에서 군집분석의 논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이종상, 2002).

군집분석에서는 유사도(거리)와 측정방법, 군집방법 등이 매우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유

6) 척도 무영향성이란 어떤 분포가 주어졌을 때 측정단위가 무엇이든지 불평등도의 측정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즉, 소득측정의 화폐단위가 원인지 달러인지 또는 신장의 측정단위가 cm인지 m인지에 의해 측정치의 값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김윤상, 1986: 138-139).

사도는 ‘제곱유클리디안 거리’, 군집방법은 ‘Ward 법’을 이용하였다. 군집분석의 방법은 ‘위계적인 군집분석’과 ‘비위계적인 군집분석’이 있다. 도시 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군집수를 사전에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계적인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3. 지역균형성장효과와 관련된 통합시의 특성 분석

지역균형성장효과가 큰 통합시와 작은 통합시를 유형화한 후에는 다시 이러한 지역균형성장효과의 차이가 통합시의 어떤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통합시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변수는 매우 다양할 것이긴 하나, 본 연구에서는 시군통합이 되기 이전에 통합대상지역이 갖고 있었던 특성과 시군통합시 고려되었던 정책요소들에 따라 통합시의 특성 변수를 도출하였다. 즉, 지역균형성장효과라는 차원에서 분류된 통합시의 유형화가 통합시의 어떤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합 당시의 통합시의 특성 변수들이 통합시의 유형화를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1994년 정부에서 통합권유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사용되었던 기준은 역사적 동일성(과거 읍에서 시승격 지역), 동일생활권(시장이용, 학군, 교통편 등), 인구규모나 지역총생산의 증감추이, 재정상태, 도시화기반 등 지역균형발전 가능성, 기타 시·군 명칭 등이었다(권선택, 1994; 박응격,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 통합시의 유형화를 설명하기 위해 고려된 통합 당시의 통합시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통합이 되기 이전의 해당 지역의 도농간 인구증가의 격차이다.

둘째, 시군통합이 되기 이전의 해당 지역의 도농간 도시화기반 구축 정도의 격차이다.

셋째, 시군통합이 되기 이전의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 정도와 도농간 지역개발 투자 정도의 격차이다.

넷째, 시군통합이 되기 이전의 해당 지역의 재정상태 및 도농간 재정상태의 격차이다.

다섯째, 시군통합이 되기 이전의 해당 지역 내 농촌지역의 도시지역에 대한 의존정도이다.

이상의 특성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지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지역균형발전효과에 따른 통합시의 유형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특성변수의 측정 지표

- ▶ 통합전(1990-1995) 통합대상 지역의 전체인구증가율(%)
- ▶ 통합전(1990-1995) 통합대상 지역의 시지역과 시인접 군지역의 인구증가율의 차이(% point)
- ▶ 통합전(1990-1995) 통합대상 지역의 시지역과 외곽 군지역의 인구증가율의 차이(% point)
- ▶ 통합전(1994) 통합대상 지역의 전체 도시계획면적 비율(%)
- ▶ 통합전(1994) 통합대상 지역의 시지역 도시계획면적 비율과 군지역 도시계획면적 비율의 차이(% point)
- ▶ 통합전(1994) 통합대상 지역의 전체 세출결산액 중 지역개발비의 비율(%)
- ▶ 통합전(1994) 통합대상 지역의 시지역 세출결산액 중 지역개발비 비율과 군지역 세출결산액 중 지역개발비 비율의 차이(% point)
- ▶ 통합전(1994) 통합대상 지역의 전체 재정규모(백만원)
- ▶ 통합전(1994) 통합대상 지역의 전체 재정자립도(%)
- ▶ 통합전(1994) 통합대상 지역의 시지역 재정자립도와 군지역 재정자립도의 차이(% point)
- ▶ 통합전(1995) 통합대상 지역의 군지역 전체 통근통학인구 중 시지역으로의 통근 통학인구의 비율(%)

지역균형성장효과와 관련된 통합시의 특성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판별분석이 사용되었다. 판별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예측적 관계성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다중회귀분석과 유사하다. 그러나, 다중회귀분석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모두 연속형 자료인 반면, 판별분석에서는 독립변수는 연속형 자료이고 종속변수는 범주형 자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판별분석은 예측변수들의 선형조합에 의해 개별 사례를 어느 한 집단으로 분류하는데 사용되면, 특히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 요소의 적합 여부를 판별하고 분류해 주기 때문에 일정한 준거(예측변수)에 따라 집단구성요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양병화, 1998).

예측변수를 통해 집단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판별분석은 집단의 분류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형조합을 통해 판별함수를 도출한다. 판별함수는 집단구분의 예측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판별함수가 좋다는 것은 곧 예측변수들이 집단을 잘 구분한다는 것을 말한다. 판별함수도 다중회귀식과 같이 각 독립변수의 가중치를 곱한 형태의 함수식을 갖는다. 일반적인 판별함수식(Z)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Z = B_0 + B_1X_1 + B_2X_2 + B_3X_3 + \dots + B_iX_i$$

여기서 Z는 판별점수, B₀는 절편(intercept), B_i는 판별계수(discriminant coefficient), X_i는 예측변수 혹은 독립변수를 말한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시군통합의 지역내 및 지역간 균형성장 효과 분석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이전인 1990년에서 1995년 기간 동안 통합시 지역은 평균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합시 지역의 내부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통합시 지역 내의 과거 시 지역은 인구가 증가한 반면, 과거 군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 군 지역 중에서도 외곽농촌지역의 인구감소정도가 도시인접 농촌지역보다 더 심하였다.

그러나 통합이후인 1995년에서 2000년 기간 동안 통합시 지역은 평균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통합전인 1990-95년 기간과 비교하여 통합후인 1995-2000년 기간의 인구성장률은 7.3%포인트 더 높았다. 또한, 과거 시 지역 뿐만 아니라 과거 군 지역 중 인접농촌지역도 1995-2000년 기간 동안 인구가 증가하였다. 비록 외곽농촌지역은 통합 후에도 여전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인구감소율은 현저히 둔화되어서 실제로 통합 후의 인구성장률은 통합 전보다 13.4%포인트 더 높은 것이었다.

<표 2> 통합시의 인구성장, 1990-95년과 1995-2000년의 비교

	1990년 인구	1995년 인구	2000년 인구	'90-'95년 성장률/a	'95-'00년 성장률/b	차이 (b-a)
통합시 전체 평균	210,998	209,064	221,442	-3.1%	4.3%	7.3%point
도시지역 평균	129,763	138,554	147,948	5.6%	6.8%	1.2%point
인접농촌지역 평균	39,115	36,596	40,498	-8.1%	5.1%	13.2%point
외곽농촌지역 평균	41,740	33,916	32,996	-18.7%	-5.2%	13.4%point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 1995, 2000.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합시 지역과 달리 비통합지역의 경우 평균적으로 1990년과 1995년 기간 동안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통합지역의 경우에도 그 내부를 살펴보면, 인구가 증가한 곳은 시 지역뿐이었다. 군지역의 경우도 외곽농촌지역이 도시인접 농촌지역보다 인구가 훨씬 더 감소하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볼 때, 비통합시 지역은 1995-2000년 기간의 인구증가율이 1990-95년 기간의 인구증가율보다 2.8%포인트 더 높았다. 또한, 과거 시 지역뿐만 아니라 과거 군 지역 중 인접농촌지역도 1995-2000년 기간 동안 인구가 증가하였다. 비록 외곽 농촌지역은 통합 후에도 여전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인구감소율은 현저히 둔화되어

서 실제로 통합 후의 인구성장률은 통합 전보다 10.8%포인트 더 높은 것이었다.

<표 3> 비통합시·군의 인구성장, 1990-95년과 1995-2000년의 비교

	1990년 인구	1995년 인구	2000년 인구	'90-'95년 성장률/a	'95-'00년 성장률/b	차이 (b-a)
비통합시·군 전체 평균¹	360,562	380,154	411,546	3.3%	6.1%	2.8%point
도시지역 평균	273,777	301,784	333,053	8.6%	8.3%	-0.2%point
인접농촌지역 평균	41,410	40,044	42,033	-6.1%	2.1%	8.2%point
외곽농촌지역 평균	45,374	38,326	36,460	-14.0%	-3.1%	10.8%point
일반시 평균²	219,426	273,162	311,530	22.1%	15.5%	-6.6%point
일반군 평균³	73,439	60,339	58,524	-17.1%	-4.8%	12.3%point

주: 1. 비통합시·군은 시를 둘러싼 군이 있는 지역이지만 시·군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의미함.
 2. 일반시는 중심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군이 없는 시를 의미함.
 3. 일반군은 중심도시가 없는 군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 1995, 2000.

이렇게 볼 때, 통합시 지역과 비통합시 지역의 인구성장추세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995-2000년 기간과 1990-95년 기간의 인구증가율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양 지역의 차이가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통합시 지역의 인구증가가 비통합시 지역의 인구증가보다 더 빠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전체(7.3%포인트 vs. 2.8%포인트)를 비교할 때뿐만 아니라 지역 내부를 나누어서 살펴볼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시지역(1.2%포인트 vs. -0.2%포인트) 뿐만 아니라 군 지역 중 시 인접지역(13.2%포인트 vs. 8.2%포인트)과 군 지역 중 외곽농촌지역(13.4%포인트 vs. 10.8%포인트)에서도 통합시 지역의 인구 증가가 비통합시 지역의 인구 증가보다 더 빠르게 나타났다.

더 나아가서, 통합시 지역에서의 시지역과 군 지역 간의 인구성장률의 격차 해소의 정도는 비통합시 지역에서의 시지역과 군 지역 간의 인구성장률의 격차 해소의 정도보다 더 컸다. 통합시 지역의 경우, 1990-95년 기간 동안 시지역과 도시인접 군 지역, 외곽 군 지역 간의 인구성장률의 격차는 각각 13.7%포인트와 24.3%포인트이었는데, 1995-2000년 기간 동안에는 각각 1.7%포인트와 12%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비통합시 지역의 경우, 1990-95년 기간 동안 시지역과 도시인접 군 지역, 외곽 군 지역 간의 인구성장률의 격차는 각각 14.7%포인트와 22.6%포인트에서 1995-2000년 기간 동안에는 각각 6.2%포인트와 11.4%포인트로 감소하는데 그쳤다.

또한, 주변에 군이 없는 일반시와 중심도시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군과 비교해 볼 때도, 통합시 지역의 시지역과 군지역이 통합 전보다 통합 후에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시·군통합이 통합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발전은 시 지역뿐만 아니라 군 지역에서도 발생하였다. 특히, 도시인접 농촌지역보다 외곽농촌지역에서 발전이 더 빠르게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시·군통합은 통합시 지역 내에서 도시와 농촌 간에 균형적인 발전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시·군통합의 지역간 균형성장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표 4>와 <표 5>의 자료가 필요하다. <표 4>는 통합시의 인구 성장을 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도별 통합시 평균 인구 성장률에 대한 변이계수가 통합이전인 1990-95년 기간에는 4.345였다가 통합이후인 1995-2000년 기간에는 1.610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5>는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지역간 불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도별 인구성장률에 대한 변이계수를 측정하였는데, 통합이전인 1990-95년 기간에는 4.674였다가 통합이후인 1995-2000년 기간에는 1.656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시·군통합이 지역간 격차를 감소하는데도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도별 통합시 평균 인구 성장 및 변이계수, 1990-95년과 1995-2000년의 비교

	1990년 인구	1995년 인구	2000년 인구	'90-'95년 성장률/a	'95-'00년 성장률/b	차이 (b-a)
경기	236,069	270,994	343,119	14.7%	29.6%	14.9%point
강원	193,011	194,052	206,195	-2.4%	3.6%	6.0%point
충북	165,687	171,138	180,819	2.7%	5.5%	2.8%point
충남	186,268	174,700	196,333	-8.7%	7.7%	16.3%point
전북	211,215	189,467	184,614	-13.5%	-4.8%	8.7%point
전남	221,504	198,331	200,334	-14.0%	1.0%	15.1%point
경북	205,739	206,448	213,650	-2.5%	2.7%	5.2%point
경남	241,692	252,933	267,807	5.5%	4.9%	-0.6%point
변이계수				4.345	1.610	2.73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 1995, 2000.

<표 5> 도별 인구 성장 및 변이계수, 1990-95년과 1995-2000년의 비교

	1990년 인구	1995년 인구	2000년 인구	'90-'95년 성장률/a	'95-'00년 성장률/b	차이 (b-a)
경기	6,155,632	7,649,741	8,984,134	24.3%	17.4%	-6.8%point
강원	1,580,430	1,466,238	1,487,011	-7.2%	1.4%	8.6%point
충북	1,389,686	1,396,728	1,466,567	0.5%	5.0%	4.5%point
충남	2,013,926	1,766,854	1,845,321	-12.3%	4.4%	16.7%point
전북	2,069,960	1,902,044	1,890,669	-8.1%	-0.6%	7.5%point
전남	2,507,439	2,066,842	1,996,456	-17.6%	-3.4%	14.2%point
경북	2,860,595	2,676,312	2,724,931	-6.4%	1.8%	8.3%point
경남	3,672,396	3,845,622	3,992,930	4.7%	3.8%	-0.9%point
변이계수				4.674	1.656	3.01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 1995, 2000.

결론적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군통합은 통합시 지역 전체에 대해서만 성장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 지역 내부의 도시와 농촌지역간에 균형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시·군통합은 국가전체적으로 지역간 격차를 감소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지역균형성장효과에 따른 통합시의 유형화

지역균형성장효과를 측정하는 3개 변수에 따른 군집분석의 결과, 4개의 군집으로 통합시가 분류되었다. 군집 I에는 5개의 통합시, 군집 II에는 23개의 통합시, 군집 III에는 10개의 통합시, 군집 IV에는 2개의 통합시가 소속되었다.

<표 6> 군집별 통합시의 분포

군집 I	군집 II		군집 III	군집 IV
남양주시	평택시	춘천시	아산시	구미시
순천시	원주시	강릉시	보령시	창원시
경산시	삼척시	충주시	천안시	
문경시	제천시	공주시	정읍시	
거제시	서산시	군산시	남원시	
	익산시	포항시	김제시	
	경주시	안동시	나주시	
	영주시	김천시	광양시	
	상주시	영천시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	밀양시	
	김해시	사천시		
	여수시			
5개 시	23개 시		10개 시	2개 시

또한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된 통합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군집 내 통합시들의 지역 균형성장효과 관련 특성변수별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 군집별 지역균형성장효과 관련 특성변수의 평균값

	군집 I	군집 II	군집 III	군집 IV
통합시 전체의 통합전후 인구성장률 차이의 차이 ¹	18.6	3.2	15.9	-16.8
시-인접농촌간 통합전후 인구성장률 차이의 격차 ²	-26.4	-13.8	9.8	-64.8
시-외곽농촌간 통합전후 인구성장률 차이의 격차 ³	-37.7	-12.8	3.6	-21.9

- 주: 1. 통합시 전체의 통합전후 인구성장률 차이는 통합후(1995-2000)의 통합시 인구성장률에서 통합전(1990-1995) 통합시 인구성장률을 뺀 값임.
 2. 시-인접농촌간 통합전후 인구성장률 차이의 격차는 통합후(1995-2000)의 통합시 내 과거 시지역 인구성장률에서 통합전(1990-1995) 인구성장률을 뺀 값에서 통합후(1995-2000)의 통합시 내 과거 시 인접 군지역 읍면의 인구성장률에서 통합전(1990-1995) 인구성장률을 뺀 값을 다시 뺀 값임.
 3. 시-외곽농촌간 통합전후 인구성장률 차이의 격차는 통합후(1995-2000)의 통합시 내 과거 시지역 인구성장률에서 통합전(1990-1995) 인구성장률을 뺀 값에서 통합후(1995-2000)의 통합시 내 과거 외곽 군지역 읍면의 인구성장률에서 통합전(1990-1995) 인구성장률을 뺀 값을 다시 뺀 값임.

군집 I에 속한 통합시들은 시군통합 전보다 시군통합 후에 통합시 전체의 인구성장률이 크게 증가하였고, 도시지역보다는 인접농촌지역이 또한 외곽농촌지역의 인구성장률 증가 정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시군통합으로 인한 지역성장효과 및 지역내 균형성장효과가 매우 큰 경우에 해당한다. 시군통합으로 인한 지역성장효과가 가장 바람직하게 나타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5곳의 통합시가 이 유형에 속한다.

군집 II에 속한 통합시들은 시군통합 전과 시군통합 후의 통합시 전체의 인구성장률이 큰 차이가 없고, 도시지역보다는 인접농촌지역이 또한 외곽농촌지역의 인구성장률 증가 정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긴 하나 군집 I에 속한 통합시들 보다 그 증가 정도는 약해서, 시군통합으로 인한 지역 전체의 성장효과는 미약하고, 지역내 균형성장효과는 어느 정도 큰 경우에 해당한다. 군집 I보다 그 정도가 약하긴 하나, 역시 시군통합으로 인한 지역성장효과가 바람직하게 나타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통합시의 절반 이상이 이 유형에 속한다.

군집 III에 속한 통합시들은 시군통합 전보다 시군통합 후에 통합시 전체의 인구성장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도시지역이 인접농촌지역보다 또한 외곽농촌지역보다 인구성장률 증가 정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시군통합으로 인한 지역전체의 성장효과는 매우 크나, 지역내 균형성장효과보다는 불균형이 심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시군통합의 지역성장효과가 지역내 균형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10곳이 이 유형에 속한다.

군집 IV에 속한 통합시들은 군집 III에 속한 통합시들과 반대로 시군통합 전보다 시군통합 후에 통합시 전체의 인구성장률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도시지역보다는 인접농촌지역이 또한 외곽농촌지역의 인구성장률 증가 정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시군통합으로 인한 지역전체의 성장효과는 없으나 지역내 균형성장효과가 매우 큰 경우에 해당한다. 통합시 중 구미시와 창원시만이 이 유형에 속한다.

<표 8> 지역균형성장효과에 따른 통합시의 유형화

		통합전후 인구성장률 차이의 도농간 격차		
		농촌이 더 크게 증가	농촌이 약간 크게 증가	도시가 더 크게 증가
통합전후 전체 인구 성장률의 차이	크게 증가	군집 I	-	군집 III
	약간 증가	-	군집 II	-
	크게 감소	군집 IV	-	-

이상의 통합시의 유형화 결과, 군집 I과 군집 II에 속한 통합시가 시군통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난 곳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군집 III과 군집 IV에 속한 통합시는 시군통합의 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역균형성장효과와 관련된 통합시의 특성 분석

통합시 유형별로 통합시의 특성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통합시 유형별 특성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특성변수	군집 I		군집 II		군집 III		군집 IV		F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통합전 전체인구증가율	1.3	17.2	-0.9	12.8	-15.8	10.5	25.3	13.2	6.914***
통합전 시-인접농촌인구 증가율 차이	14.9	37.2	20.7	14.2	-5.0	33.6	22.9	8.5	2.852*
통합전 시-외곽농촌인구 증가율 차이	34.8	19.5	26.1	11.0	12.1	13.3	36.7	19.0	4.747***
통합전 전체도시계획면 적 비율	22.6	21.8	16.6	13.7	12.2	11.1	42.6	23.0	2.639*
통합전 시공간도시계획 면적 비율 차이	64.9	23.5	57.1	25.3	53.6	26.2	82.0	15.3	.840
통합전 전체지역개발비 비율	35.3	8.4	33.3	5.4	24.9	3.4	34.0	8.8	6.498***
통합전 시공간지역개발 비 비율 차이	14.1	9.8	13.8	7.2	12.4	9.7	17.6	2.7	.240
통합전 전체재정규모	95,663	15,218	122,131	33,125	102,753	28,964	147,695	43,671	2.320*
통합전 전체재정자립도	44.5	12.2	44.5	10.3	43.1	15.3	74.8	11.2	4.199**
통합전 시공간재정자립 도 차이	10.9	19.5	23.7	10.6	16.7	13.8	51.1	1.5	5.569***
통합전 군에서 시로의 통근통학비율	17.5	12.6	29.4	14.4	28.5	6.2	32.7	6.8	1.376

* P<.1, ** P<.5, *** P<.01

시군통합 전 통합대상 지역의 전체인구증가율은 군집 IV에 속한 통합시가 가장 높았고, 군 집 III에 속한 통합시는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던 지역이다. 통합전 시지역과 시인접 농촌 지역간의 인구증가율의 차이는 군집 IV에 속한 통합시가 가장 높았고, 군집 III에 속한 통합시 는 오히려 시지역이 시인접 농촌지역보다 인구증가율이 낮았다. 통합전 시지역과 외곽 농촌지 역간의 인구증가율의 차이는 모든 유형에서 시지역이 높았는데, 그 차이가 가장 큰 곳은 군집 IV에 속한 통합시이고, 그 차이가 가장 작은 곳은 군집 III에 속한 통합시이다.

시군통합 전 통합대상 지역의 전체 도시계획면적비율은 군집 IV에 속한 통합시가 가장 높 았고, 군집 III에 속한 통합시가 가장 낮았다. 통합전 시지역과 군지역간의 도시계획면적비율의 차이는 군집 IV에 속한 통합시가 가장 컸고, 군집 III에 속한 통합시가 가장 작았다. 그러나 이러

한 통합시 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시군통합 전 통합대상 지역의 전체 지역개발비 비율은 군집 I에 속한 통합시가 가장 컸고, 군집 III에 속한 통합시가 가장 낮았다. 통합전 시지역과 군지역간의 지역개발비 비율의 차이는 군집 IV에 속한 통합시가 가장 컸고, 군집 III에 속한 통합시가 가장 작았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시 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시군통합 전 통합대상 지역의 전체 재정규모는 군집 IV에 속한 통합시가 가장 컸고, 군집 I에 속한 통합시가 가장 작았다. 시군통합전 통합대상 지역의 전체 재정자립도는 군집 IV에 속한 통합시가 가장 컸고, 군집 I에 속한 통합시가 가장 작았다. 통합전 시지역과 군지역간의 재정자립도의 차이는 군집 IV에 속한 통합시가 가장 컸고, 군집 I에 속한 통합시가 가장 작았다.

시군통합 전 군지역에서 시지역으로의 통근통학비율은 군집 IV에 속한 통합시가 가장 높았고, 군집 I에 속한 통합시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시 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특성을 통합시 유형별로 다시 정리하면, 군집 IV에 속한 통합시는 시군통합 전에 전체인구증가율이 매우 높았고, 도농간 인구증가율의 격차도 매우 큰 편이다. 또한, 전체 도시계획면적비율도 매우 높았고, 도농간 도시계획면적비율의 격차도 매우 큰 편이다. 전체 지역개발비의 비율도 높은 편이고, 도농간 지역개발비 비율의 격차도 큰 편이다. 전체 재정규모도 매우 큰 편이고, 전체 재정자립도도 매우 높은 편이며, 도농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도 매우 큰 편이다. 또한, 군에서 시로의 통근통학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군집 IV에 속한 통합시는 지역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성장하는 추세에 있었고 도시화 기반도 잘 구축되어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풍족하긴 하나, 도시와 농촌지역간에 그 격차가 매우 크고 농촌지역이 도시에 종속되어 있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군집 III에 속한 통합시는 시군통합 전에 지역 전체인구가 감소하고 있었으나, 도농간 인구증가율의 격차는 가장 작은 편이다. 또한, 전체 도시계획면적비율도 가장 낮았고, 도농간 도시계획면적비율의 격차도 가장 작은 편이다. 전체 지역개발비의 비율도 가장 낮았으나, 도농간 지역개발비 비율의 격차는 가장 작은 편이다. 전체 재정규모도 작은 편이고, 전체 재정자립도도 가장 낮은 편이며, 도농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도 작은 편이다. 따라서, 군집 III에 속한 통합시는 지역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고 도시화 기반도 빈약하고, 재정적으로도 빈약하긴 하나, 도시와 농촌지역간에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편이어서 도시와 농촌 모두 지역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군집 I과 군집 II에 속한 통합시는 그 특성이 유사한 점이 많이 있으며, 군집 III과 군집 IV에 속한 통합시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집 I에 속한 통합시는 시군통합 전 지역내 전체 지역개발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고, 시군간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가장 낮은 곳이며, 군에서 시로의 통근통학비율도 가장 낮은 곳이라는 점에서 군집 II에 속한 통합시와 차

이가 난다. 또한, 군집 II에 속한 통합시는 군집 I에 속한 통합시보다 재정규모가 큰 편이고, 시군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더 크고, 농촌지역의 도시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특성변수들이 통합시의 유형화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판별 함수

Function	Eigenvalue	% of Variance	Cumulative %	Canonical Correlation
1	2.398	63.0	63.0	.840
2	.868	22.8	85.9	.682
3	.538	14.1	100.0	.591

<표 11> 판별함수의 유의도 검증

Test of Functions	Wilks' Lambda	Chi-square	df	Sig.
1 through 3	.102	71.773	33	.000
2 through 3	.348	33.240	20	.032
3	.650	13.558	9	.139

<표 12> 판별함수에 따른 분류 결과

		Predicted Group Membership				Total
		군집 I	군집 II	군집 III	군집 III	
Original Count	군집 I	4	1	0	0	5
	군집 II	2	19	1	1	23
	군집 III	0	0	10	0	10
	군집 IV	0	0	0	2	2
%	군집 I	80.0	20.0	.0	.0	100.0
	군집 II	8.7	82.6	4.3	4.3	100.0
	군집 III	.0	.0	100.0	.0	100.0
	군집 IV	.0	.0	.0	100.0	100.0

* 87.5% of original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이상의 판별분석의 결과는 첫 번째 판별함수가 4가지 통합시 유형을 구분하는데 63% 기여하고, 두 번째 판별함수는 22.8% 기여함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 두 가지 판별함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판별함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다.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판별함수는 모두 예측력이 있는 좋은 판별함수라고 할 수 있으나, 첫 번째 판별함수의 설명량이 매우 높아 집단구분이 첫 번째 함수에 의해 대부분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합시 특성변수가 통합시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서의 정확도가 87.5%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통합시 균형성장효과와 관련된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특성변수들의 집합은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통합시 균형성장효과와 관련된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특성변수들의 판별식은 다음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13> 비표준화 판별함수계수

특성 변수	Function		
	1	2	3
통합전 전체인구증가율	.036	-.008	-.006
통합전 시-인접농촌간 인구증가율 차이	.017	.035	-.017
통합전 시-외곽농촌간 인구증가율 차이	.006	-.081	.036
통합전 전체도시계획면적 비율	.001	-.008	.021
통합전 시-군간 도시계획면적 비율 차이	-.004	-.014	-.005
통합전 전체지역개발비 비율	.185	-.057	-.031
통합전 시-군간 지역개발비 비율 차이	.009	.034	.041
통합전 전체재정규모	.000	.000	.000
통합전 전체재정자립도	-.080	.053	.088
통합전 시-군간 재정자립도 차이	.085	.058	.004
통합전 군에서 시로의 통근통학 비율	-.038	.002	-.017
(Constant)	-4.652	-.963	-.870

예측 변수들의 척도가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어떤 변수들이 특히 유형화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판별함수계수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예측변수들의 공통변량이 전체 설명변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직접적 판별분석을 통해 상대적 기여도를 설명할 때는 상대적인 기여 변량을 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별함수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판별분석의 구조행렬(structure matrix)을 볼 필요가 있다. 구조행렬의 값은 각 사례에 대해 판별함수값과 예측변수의 값에 대한 피어슨 적률상관(Pearson Canonical Correlation)을 의미한다. 즉, 예측변수의 선형조합에 의해 선출된 각 사례의 판별점수와 그 사례가 갖는 예측변수에 대한 원점수 간의 상관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최종의 판별함수에 기여하는 예측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로 해석된다(양병화, 1998).

7) 판별함수와 예측변수의 상관.

<표 14> 구조 행렬

특성 변수	Function		
	1	2	3
통합전 전체지역개발비 비율	.447*	-.268	.035
통합전 시-외곽농촌간 인구증가율 차이	.356*	-.228	.292
통합전 시-인접농촌간 인구증가율 차이	.312*	-.026	-.086
통합전 시-군간 재정자립도 차이	.249	.563*	.274
통합전 군에서 시로의 통근통학비율	.021	.341*	-.155
통합전 전체재정규모	.207	.322*	-.022
통합전 전체재정자립도	.157	.324	.609*
통합전 전체도시계획면적 비율	.178	.069	.510*
통합전 전체인구증가율	.431	.088	.479*
통합전 시-군간 도시계획면적비율 차이	.092	.015	.304*
통합전 시-군간 지역개발비 비율 차이	.071	.030	.116*

* Largest absolute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and any discriminant function

구조행렬표에 따를 경우, 첫 번째 판별함수에 대해서는 통합전 전체지역개발비 비율이 .447로 상관이 가장 높고, 통합전 시-외곽농촌간 인구증가율 차이(.356), 통합전 시-인접농촌간 인구증가율 차이(.312)의 순이었다. 두 번째 판별함수에 대해서는 통합전 시-군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563으로 가장 높고, 통합전 군에서 시로의 통근통학비율(.341), 통합전 전체재정규모(.322)의 순으로 상관이 높았다. 따라서 첫 번째 판별함수는 통합전 전체지역개발비 비율, 통합전 시-외곽농촌간 인구증가율 차이, 통합전 시-인접농촌간 인구증가율 차이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는 반면, 두 번째 판별함수는 통합전 시-군간 재정자립도 차이, 통합전 군에서 시로의 통근통학비율, 통합전 전체재정규모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

더 나아가서, 판별함수별 집단 센트로이드를 비교해 보면 통합시의 유형구분을 어떤 변수가 더 잘 설명하는지 알 수 있다.

<표 15> 예측변수들의 선형결합에 의한 집단 평균(집단 센트로이드)

유형	Function		
	1	2	3
군집 I	.234	-2.055	.872
군집 II	.844	.117	-.436
군집 III	-2.472	.343	9.447E-02
군집 IV	2.072	2.079	2.357

주) Un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s evaluated at group means

먼저 첫 번째 판별함수에서 군집 III의 센트로이드는 -2.472인 반면, 군집 IV의 센트로이드는 2.072이고, 군집 I과 군집 II의 센트로이드는 .234와 .844로 나타나서, 첫 번째 판별함수는 군집 III을 군집 IV 및 군집 I, II와 구분하는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즉, 첫 번째 판별함수는 통합전 전체 지역개발비 비율과 통합전 시-외곽농촌간 인구증가율 차이, 통합전 시-인접농촌간 인구증가율 차이와 가장 상관이 높았으므로 군집 III을 나머지 군집과 구분해주는 중요한 특성은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시 <표 9>에 있는 각 군집별 평균값과 비교해 보면 통합전에 전체 지역개발비비율이 작을수록, 그리고 통합전에 시와 외곽농촌지역간 및 시와 인접농촌지역간 인구증가율의 차이가 작을수록 시군통합 후에 전체적인 인구성장은 더욱 촉진되나, 그 효과가 도시로 집중되어 도농간 성장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적으로 낮았던 곳은 통합이후에 도시와 농촌의 전 지역에 균형된 지역개발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 우선 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오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도농간 균형적인 인구증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판별함수는 첫 번째 판별함수가 분류한 나머지 집단 즉, 군집 I, II와 군집 IV를 판별하게 된다. 구조행렬에서 두 번째 판별함수는 통합전 시-군간 재정자립도 차이, 통합전 군에서 시로의 통근통학비율, 통합전 전체재정규모와 가장 상관이 높았으므로 군집 I, II와 군집 IV를 구분해주는 중요한 특성은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시 <표 9>에 있는 각 군집별 평균값과 비교해 보면 통합전에 시-군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클수록, 통합전에 군에서 시로의 통근통학비율이 높을수록, 통합전에 전체 재정규모가 클수록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인구성장이 촉진되나, 지역 전체의 인구성장은 둔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군통합으로 인해 도시지역의 상대적으로 풍부한 재정이 농촌지역으로 분배되고 있고, 전체적인 재정력이 클수록 농촌지역으로의 분배가 촉진될 수 있는데 오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도시 의존도가 높을수록 분배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의 정도가 클수록 지역 전체의 성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판별함수가 첫 번째와 두 번째 판별함수가 분류한 나머지 집단인 군집 I과 군집 II를 판별하게 되는데, <표 11> 판별함수의 유의도 검증에서 본 바와 같이 세 번째 판별함수는 그 판별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표 14> 구조행렬에서 보여진 첫 번째와 두 번째 판별함수에서 사용된 특성변수 이외의 나머지 변수들이 군집 I과 군집 II를 판별하는데 유용한 변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V. 결 론

결론적으로 이상의 세 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시·군통합은 통합시 지역 전체에 대해서만 성장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 지역 내부의 도시와 농촌지역간에 균형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시·군통합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지역간 격차를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시군통합의 지역균형성장효과는 모든 통합시에 일관되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지역 성장효과 및 지역내 균형성장효과에 따라 통합시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군집 I에 속하는 통합시는 시군통합으로 인한 지역성장효과 및 지역내 균형성장효과가 매우 큰 집단이고, 군집 II에 속하는 통합시는 군집 I보다 그 정도가 약하긴 하나 역시 시군통합으로 인한 지역 균형성장효과가 바람직하게 나타나는 집단이다. 군집 III에 속하는 통합시는 시군통합으로 인한 지역전체의 성장효과는 매우 크나, 지역내 불균형성장이 나타나고 있어, 시군통합의 지역 성장효과가 지역내 균형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집단이다. 군집 IV에 속하는 통합시는 시군통합으로 인한 지역전체의 성장효과는 없으나 지역내 균형성장효과가 매우 큰 집단이다. 따라서, 군집 III이나 군집 IV보다는 군집 I이나 군집 II에 속한 통합시가 시군통합의 효과가 바람직하게 나타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통합시별 시군통합의 지역균형성장효과의 차이와 관련된 통합전 통합시의 특성을 살펴보면, 군집 III을 군집 IV 및 군집 I, II와 구분해주는 통합전 통합시의 특성은 통합전 전체 지역개발비 비율과 통합전 시·외곽농촌간 인구증가율 차이, 통합전 시·인접농촌간 인구증가율 차이라고 할 수 있고, 군집 IV를 군집 I, II와 구분해주는 통합전 통합시의 특성은 통합전 시·군간 재정자립도 차이, 통합전 군에서 시로의 통근통학비율, 통합전 전체재정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궁극적으로 시군통합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통합시 지역내의 그리고 지역간 균형성장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시군통합이라는 정책은 본래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군통합으로 인한 지역균형성장의 정책효과가 모든 통합시에 일관되게 나타난 것은 아니므로 시군통합을 위한 대상 지역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시군통합의 지역성장 및 지역내 균형성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성장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현저히 둔화되어 있는 지역과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농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큰 지역과 농촌지역의 도시의존도가 큰 지역, 전체적인 재정력이 큰 지역은 도시지역으로부터의 농촌지역으로의 지나친 분배가 지역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재. (1996).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경북과 전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8(2): 365-384.
- 권선택. (1994).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방향. 「도시문제」. 6월호: 60-69.
- 김운상. (1986). 「도시모형론」.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김호정. (1993). 「행정통계학: 한국행정의 계량적 분석」. 서울: 삼영사.
- 박수영. (1994). 「도시행정론」. 서울: 박영사.
- 박용격. (1995). 과연 주민 편익위주의 행정개혁인가: 행정구역개편 추진현황과 평가. 「지방자치」. 4월호: 12-16.
- 박종화, 윤대식, 이종열. (1995). 「지역개발론」. 서울: 박영사.
- 백성운. (1994).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의 장단점 및 향후과제. 「도시문제」. 6월호: 70-81.
- 양병화. (198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이규환. (1994). 도농통합시의 행정체계. 「자치행정」. 9월호: 15-28.
- 이상엽. (1995). 중국의 지역격차 분석. 「한국행정학보」. 29(3): 713-732.
- 이성복. (1995). 「도시행정론」. 서울: 법문사.
- 임승달. (1995). 통합시의 도시개발 과제와 방향. 「도시문제」. 3월호: 33-49.
- 장태욱. (1994). 도농통합의 의의와 방향. 「도시문제」. 6월호: 9-20.
- 최양부, 윤원근. (1988).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 정주체계에 따른 도농통합적 행정구역의 모색」.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양부, 윤원근. (1993). 도농통합적 시·군행정구역의 설정방안. 「지방행정연구」. 8(2): 87-104.
- 한표환. (1994). 지방자치와 지역격차. 「지방자치의 발전전략」. 서울: 박문각. pp. 149-175.
- 홍기용. (1994). 「지역경제론」. 서울: 박영사.
- 홍준현. (1997). 시·군통합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의 효과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8(2): 59-90.
- 황명찬 (1994). 「지역개발론」. 서울: 법문사.
- Becker, F. (1996). Fragmentation of Municipal-level Services and the Erosion of Planning Capacit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utheastern Conference for Public Administration. October. Miami, FL.
- Blair, J. P., S. R. Staley & Z. Zhang. (1996). The Central City Elasticity Hypothesis: A Critical Appraisal of Rusk's Theory of Urban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2(3): 345-53.
- Blair, J. P. & Z. Zhang. (1994). Ties that Bind Revisited.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8: 4.

- Carr, J. B. & R. C. Feiock. (1999). Metropolitan Govern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Urban Affairs Review*. 34(3): 476-488.
- Cisneros, Henry G. (1995). *Regionalism: The New Geography of Opportunit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DeGrove, J. (1973). The City of Jacksonville: Consolidation in Action. In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Regional Governance Promise and Performance. Substate Regionalism and the Federal System*. Vol. III.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Downs, Anthony. (1994). *New Visions for Metropolitan Americ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Feiock, R. C., M. Dubnick & J. Mitchell. (1993). State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and National Economic Growth.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15: 55-67.
- Fleischmann, A. & G. Green. (1991). Organizing Local Agencies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1(1): 1-15.
- Glendening, P. N. & P. S. Atkins. (1980). City-County Consolidations: New Views for the Eighties. In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ed.). *The Municipal Year Book 1977*. Washington, DC: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 Hansen, N. M. (1973). Growth Center Policy in the United States. In N. M. Hansen. (ed.). *Growth Centers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Free Press. pp. 266-281.
- Herbers, J. (1989). 17th-Century Counties Struggle to Cope with 20th-Century Problems. *Governing*. 2: 42-48.
- Horan, J. & G. T. Taylor. (1977). *Experiments in Metropolitan Government*. New York, NY: Praeger.
- Ledebur, L. C. & W. R. Barnes. (1992). *Metropolitan Disparities and Economic Growth: City Distress and the Need for a Federal Local Growth Package*. Washington, DC: National League of Cities.
- Mizra, R. P. & Ed. B. Prantilla. (1981). Basic Needs and Development Planning: Focus on India and the Philippines. In H. Nagamine. (ed.). *Human Needs and Regional Development*. Nagoya, Japan: Maruzen Asia. pp. 33-44.
- Myrdal, G. (1957).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Gerald Duckworth.
- Persky, Joseph, Elliott Sclar, & Wim Wiewel. (1991). *Does America Need Cities?* Washington, DC: Economic Policy Institute.
- Rigos, P. (1995). Metropolitan Governance Policy: Forty Five Years of Experimentation, Research and Ideological Conflic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uthern Political Science

- Association. November. Atlanta, GA.
- Rusk, David. (1993). *Cities Without Suburbs*. Washington, D.C.: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avitch, H. V., David Collins, Daniel Sanders & J. P. Markham. (1993). The Ties That Bind: Central Cities, Suburbs, and the New Metropolitan Region.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7(4): 341-57.
- Savitch, H. V. & R. Vogel. (1995). Regional Patterns in a Post City Ag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ptember. Chicago.
- Voith, Richard. (1992). Cities and Suburban Growth: Substitutes or Complements? *Business Review*. (Sept.-Oct.): 21-33.
- Williamson, Jeffrey G. (1965). Regional Inequality and the Process of National Development: A Description of the Pattern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3(4): 3-45.

K C I